

산업별 창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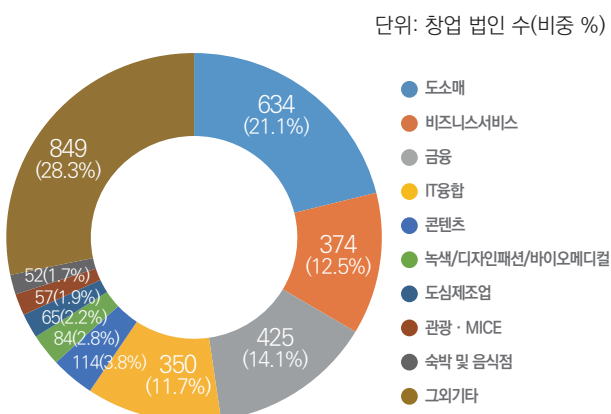
I 법인창업지수 증감률(전년 동월 대비)

- 2019년 11월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125.1로 전년 동월 대비 5.5% 상승
- 11월 서울시 전체 신설법인 수는 3,004개이며, 이중 비영리법인 94개(3.1%)
- 서울에서 법인창업 비중이 높은 금융, 도소매, IT융합, 비즈니스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전년 동월 보다 창업이 활발하게 증가하면서 11월 법인창업 지수 성장을 견인
 - 금융(14.6%), 관광·MICE(11.8%), 도소매(7.8%), 그외기타(7.6%), IT융합(2.9%), 비즈니스서비스(2.2%) 등 주로 서울 시에서 창업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법인창업 증가
 - 반면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(-19.28%), 콘텐츠(-12.3%), 도심제조(-11.0%), 숙박 및 음식점(-5.5%) 등의 산업에서는 법인창업 감소

I 산업별 창업 현황

- 산업별로는 도소매 634개, 금융 425개, 비즈니스서비스 374개, IT융합 350개, 콘텐츠 114개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 84개, 도심제조 65개, 관광·MICE 57개, 숙박 및 음식점 52개, 그외기타 산업 849개가 창업
- 그외기타 산업은 9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으로 부동산 산업(35.3%), 제조업(19.1%), 건설업(14.0%) 등으로 구성

[그림 1] 2019년 11월 산업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

- 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융(54개), 도소매(46개), IT융합(10개), 비즈니스서비스(8개), 관광·MICE(6개), 그외기타(60개), 등의 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법인창업이 증가했으며, 반면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(-20개), 콘텐츠(-16개), 도심제조(-8개), 숙박 및 음식점(-3개) 등의 산업은 법인창업이 감소

- 11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금융은 3월부터 9개월 연속 (+)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도소매, IT융합, 비즈니스서비스 등의 산업도 3개월 이상 (+) 성장률을 기록, 10월 큰 폭으로 감소했던 관광·MICE도 반등하는 등 전반적인 성장세 유지
- 반면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 산업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법인창업 감소. 특히 산업 중분류 기준 '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'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, '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', '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', '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' 등이 주춤하면서 서울시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침체

[표 1] 2019년 11월 산업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